

情報化 立國을 위한 情報通信 政策 方向

尹 東 潤
遞 信 部 長 官

I. 머리말

1. '80년대 成果

- '70년대는 慢性的인 電話積滯에 시달림
- '80년대
 - 情報통신의 政策과 事業기능 分리를 위해 通信公社 발족
 - 전자교환기의 개발, 대량공급 체제를 구축하여 1가구1전화 시대 실현
 - 우리기술로 개발한 全電子交換機로 '88올림픽 통신지원을 완벽히 수행해 우리나라 情報통신 수준을 세계에 과시
 - 情報통신서비스에의 競爭導入으로 情報통신서비스 발전기틀 마련
 - 과학기술의 올림픽인 대전 EXPO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첨단 情報통신을 선보일 것임.

2. 미흡한 點

- 情報통신 供給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내 量的 성장을 위해 情報通信網(서비스)위주 정책을 치중
- 급속한 技術革新과 社會變化 추세에 對處한 情報통신정책 미흡



2000년대를 바라본 情報通信政策 方向 정립

II. 國內外 與件變化

1. 대외적 與件

- 정치적 理念對決이 퇴조하고 국가간 경제적 實利追求와 競爭이 치열해지는 經濟戰爭時代 도래
 - 기업경영의 世界化 가속으로 「地球村經濟時代」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競爭 가열
 - 유럽共同體(EC), 北美自由貿易協定(NAFTA) 등 經濟블러화현상 대두
- 技術保護 政策으로 技術霸權主義 확산
 - 선진국 기업간의 전략적 提携로 技術寡占 현상 심화
 - 情報통신, 환경 등 尖端産業관련 핵심기술 保護障壁 심화
 - 「自己기술」이 있어야 「남의 技術」을 얻을 수 있음
- 情報통신분야에 대한 通商壓力 가중
 - 미국의 수퍼301조 復活(추진) 등 通商環境의 급속한 악화
 - 우루과이라운드, GATT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競爭優位분야인 情報통신분야에 대한 自由化, 開放化 압력 가중

2. 대내적 與件

- 민주화 과정에서 빚어진 과도기적 病弊現象으로 經濟效率 저하
 - '80년대 이후 급격한 賃金 상승, 제조업 回避현상(3D) 蔓延으로 「제조업 空洞化」현상 우려
- 한국경제의 성장 원동력인 低賃金과 해외技術 및 해외 部品에 의존한 加工, 組立생산의 구조적 한계 노정
 - 후발도상국과는 「價格」 경쟁에서 열세
 - 선진국과는 「技術」 경쟁에서 열세
 - 특히 技術壽命이 짧아서 한 발만 뒤져도 競爭力을 확보하기 어려운 情報통신산업에 대해 技術的 뒷

받침 없는 金融, 稅制 등 종래의 지원정책으로는 先進國은 물론, 競爭國인 대만에도 경쟁력 확보 곤란

- 대만 : 386PC 생산을 中斷하고 금년 중에 586PC 시판 전망
- 한국 : 386PC 생산수준으로는 先進國 시장 공략 곤란

- '70년대 : 도로, 항만 등 物流流通網이 경제성장에 기여
- '90년대 : 情報流通網이 산업의 대외경쟁력 좌우
- 「정보통신 없는 미래는 想像할 수 없음」

Ⅲ. 「新한국」창조와 情報通信의 역할

1. 「新한국」 창조와 情報通信

○「新한국」 창조를 위한 核心과제

- 국민편의를 增進하고 시장의 自律기능을 장려하는 작고 效率的인 정부 구현
-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先進經濟大國에 진입
- 地域均衡 발전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社會 실현
- 核心과제 달성의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情報化

國家의 정보화 ⇒ 작고 效率的인 政府 구현

産業의 정보화 ⇒ 先進經濟의 定着

地域의 정보화 ⇒ 더불어 잘 사는 社會실현

2. 情報通信産業의 중요성

○고도성장이 예상되는 主力산업으로 새로운 國富의 원천

- 2000년대 주력산업으로 부상
-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, 고부가가치, 저공해 산업

○技術集約的인 미래 先導産業

- 전, 후방 關聯效果가 지대하여 관련 기술개발 촉진
- 技術力에 기초한 競爭우위 확보로 산업구조의 高度化촉진

○산업의 對外競爭力 제고와 경제 先進化의 견인차

-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사회의 情報化를 뒷받침
- 임금상승으로 隘路를 겪고 있는 산업의 競爭力 회복과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기여

○정보화시대를 主導하는 「社會下部構造」

정보통신산업은 고도성장이 예상되는 有望산업이고 경제전반의 파급효과가 지대한 「新사회간접자본」으로 「국가戰略산업」으로 집중 육성해야 함

Ⅳ. 「新 정보통신政策」 方向

1. 政策目標

○컴퓨터와 통신기술의 飛躍의 발전으로 통신, 컴퓨터,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시스템화 되고, 네트워크화가 진전됨에 따라 「規模의 經濟」 시대에서 「連結의 經濟」시대로 이행

○그러나 현재의 行政體制와 産業政策은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 對處 곤란

-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산업 育成을 담당하는 政推進體制가 분리되어 綜合的 育成 곤란
- 規制와 監督위주의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은 音聲서비스의 보급에 기여했으나 다양한 高度 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民間의 創意와 活力 필요
-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지않은 정보통신기기 산업 정책은 量的 팽창에도 불구하고 核心 기술과 부품의 외국 의존 심화

○「발상의 대전환」으로 정보통신산업 집중육성

- 60 ~ 80년대 : 經濟 入口으로 高速經濟成長 실현
- 2000년대 : 情報化 入口으로 先進經濟 정착



「情報化」 入口으로 「國家競爭力」 확보

2. 主要 政策方向

가. 情報化 촉진과 「超高速정보통신망」 구축

○國家社會 전반의 情報化 촉진

-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의 적극 추진을 통해 公共부문의 情報化 촉진

- 컴퓨터 1,000만대 보급 및 公共 DB 구축
- 産業정보화 등 民間부문의 정보화 적극 지원
- 情報通信振興基金 운용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情報化사업 적극 지원
- 地域情報化 촉진을 통한 地域 均衡發展과 지방경제 活性化
- 국가戰略사업으로 「超高速정보통신망」 구축
- 정보사회의 「새로운 社會間接資本」 건설을 위해 「超高速 정보통신망」 구축을 국가戰略사업으로 凡政府 차원에서 추진
- 음성, 데이터, 영상 정보를 同時에 超高速으로 전송
- 2010년대까지 전국의 가정, 기업, 학교, 연구소, 정부를 尖端光케이블망으로 연결
- 光纖維를 중심으로 하는 유선과 위성, 이동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無線技術이 종합된 「情報의 大動脈」을 건설 국내는 물론 세계의 情報網과 연결하여 「언제, 어디서, 누구와도」 즉시 情報流通體制 구축

※ 선진외국의 동향

- 미국 : 클린턴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전국에 「Electronic Super-Highway」을 연방정부가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중.
- 일본 : 「신사회자본」 건설 기치하에 2015년까지 45조엔을 투입하여 전국적인 광케이블망 구축과 관공서 등의 정보화를 가속화하는 계획을 강구중.
- EC : 각 회원국을 연결하는 「초고속행정망」 구축계획을 발표
- 「국가사회 情報化 촉진」 시책과 「超高速정보통신망」 구축을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직·간접적 정책수단으로 활용
- 「국가사회 情報化 촉진」과 「超高速 정보통신망」 구축사업은 막대한 정보통신기기와 S/W 需要를 유발
- 앞으로 需要정책과 供給정책을 綜合的으로 연계하여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을 先進國 수준으로 육성

- 나. 정보통신서비스 市場에서의 「規制緩和」
- 「保護와 規制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「自律과 競争」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
- 정보통신서비스 市場에의 競争導入 확대
- 사전 「規制」 기능은 縮小하고 사후 「管理」 기능은 強化
- 규제기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公共性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규제절차의 透明性 보장
- 실질적 競争促進을 위한 經營 自律性 보장
- 다수 사업자 경쟁시대에 대비한 規制기능의 專門性 확보
- 「通信委員會」의 規制기능과 公正競争기능 강화
- 사업자간의 公正競争與件 확보에 중점

다. 「産業發展과 技術開發」 정책강화

-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戰略的 産業정책 추진
- 정보통신망(네트워크)를 주축으로 정보통신서비스, 기기, S/W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「시스템 産業」에 부합하는 産業政策추진
- 技術導入, 單純組立, 輸出獎勵 지원에서 탈피하여 技術力을 바탕으로 한 産業의 國際比較優位 확보에 주력
- 종래의 「一般的」 육성방식을 탈피하여 「戰略的」 분야를 중점적으로 集中 육성
- 情報通信 技術開發 強化
- 핵심隘路기술 개발과 人力양성에 치중
- 선진외국의 技術保護主義에 대비한 固有기술개발 강화
- 기술개발 危險負擔이 커서 民間부문이 투자를 忌避한 분야에 주력
- 연구成果의 質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R&D에 競争原理 도입
- 能力있는 연구팀이 지원받을 수 있는 風土 조성
- 개발기술이 産業化 될 수 있도록 創業지원 강화
-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는 核心 부품개발 강화를 위한 산, 연간의 協力체제 구축
- 민간의 試製品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시설 개방
- 중소기업체간의 共同연구개발 기반 조성
- 정보통신산업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前向的 통상정책 전개

- 대외개방을 국내기업의 經營體質 개선과 國際 기회로 활용
- 정보통신산업의 競爭力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情報通信産業 自由化政策 靑寫眞 제시
- 情報社會를 주도할 先導 經濟政策部處로서 遞信部가 지향하는 「新 정보통신政策」은 情報가 경제 사회 곳곳에 물처럼 거침없이 흐를 수 있도록 條件을 조성하는 것임.

맺 음 말

-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의 勞動과 資本을 위주로 한 요소주도형 성장을 뛰어넘어 技術力에 기초한 성장을 해야 하는 岐路에 서있음.
- 隘路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構造調整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, 엄청난 기술과급효과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산업을 國家 戰略産業化 하여야 함.
- 그래야만 情報化 정도가 國力の 지표가 되는 21 세기에 先進國으로 진입할 수 있는 「新한국」창조의 기반이 구축될 것임.
- 앞으로 政府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「環境」을 조성하고, 企業의 「成長」은 여러분의 所任임.
- 우리 모두가 이 시대적 召命을 위해 熱과 誠을 다한다면 21세기 우리 後孫들이 배우게 될 세계 경제지도상에서 우리 한국은 確固한 위치를 차지 하게 될 것임. 🌐